

여름철 재난피해 선제 대응 ‘총력’

익산시, 도로·주택·건설현장·하천 등 분야별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
지하차도 자동 진입차단시설 설치 등… 분야별 핵심 대응체계 본격 가동

익산시가 국지성 폭우 등 올여름 이 상기후 대비에 나섰다.

시는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여름 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 고자 분야별 핵심 예방 대책을 수립 하고, 선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고 밝혔다.

올해 시는 ‘사전 예방 중심 대응체 계 강화’와 ‘응급복구 준비’ 병행이라 는 이중 전략을 세웠다. 건설·하천· 도로·주택 등 전 영역에서 시민 생 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.

익산시는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 로 소와 보수 응급 대응체계를 구축 하고, 도로보수원·가로정비원 중심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.

축구와 교량을 정비하고, 현수막계 사대의 고정상태를 점검하는 등 도로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도 병 행된다.

최근 시는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해 송학·중앙·삼바레기·하나로 지하 차도 4곳에 20억원을 투입해 자동 진 입차단시설을 이달 말까지 설치한다. 수위 상승 시 센서가 감지되면 차량 진입을 자동 차단하게 된다.

또한, 배수로와 배수펌프를 점검하 고, 집중호우 시 실시간 모니터링 체 계를 운영해 비상상황에 즉각적인 신 속 대응을 펼칠 예정이다.

시는 오는 23일부터 6월 13일까지 시공 중인 공동주택 5개소에 대한 집

중점검을 시행한다. 6월 11일부터는 지역 의무 관리 공동주택 151개소에 대한 우기 대비 일제 안전점검도 실 시한다. 점검 항목은 지반 침하와 건 물 균열, 배수시설 상태, 복구설비, 비 상 연락망 등이다.

아울러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해 지하 주차장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6개 단지에 물막이판 설치비용 80%(최대 500만 원)를 지원하고, 장 마 전 설치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진 행 중이다.

이와 함께 반지하 주택 24호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마쳤다. 대상 주택 을 확인한 결과 침수 피해 우려는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. 타워크레인 설치 건설 현장 3개소에 대한 태풍 대비 이행 실태 점검도 마무리 지었다.

또한, 익산시는 또 올해 발주하는 216건의 건설공사를 상시 관찰하고 있다. 절·성토 작업, 도로점용 굴착 등 우기 전 민원 다발 구간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서다.

시는 현장 관계자들에게 각종 사고 사례와 안전 수칙을 전파하는 등 안 전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.

특히 대형 건설공사 12개소에 대해 서는 터파기, 옹벽, 석축 등 위험 요 소를 집중 점검하며, 공사장 위해요소 사전 제거와 부실시공 방지에 주력하 고 있다.

하천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도 이어 지고 있다. 시는 22개소 주요 하천 시

설물에 대한 정밀·정기 점검을 한 차례 완료한 데 더해 92개소 하천에 대한 해빙기·홍수기 전 자체 안전 점검도 추가로 진행했다.

시는 현재 지난해 호우피해를 입은 하천에 대한 413억 원 규모의 수해복 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. 87억 원이 투입되는 기능복원 사업은 40개소, 90 건 규모이며 오는 6월 내 마무리될 예정이다.

328억원을 투입하는 산복천 개선복 구 사업은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 할 계획이다. 수위 관측·방류계획 공 유 등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도 지속 강화한다. 집중호우 발생 시에는 하천 유지보수 단기계약 업체 와 협력해 즉시 응급 복구(사석, 토마 대 등)에 나선다.

시는 비상상황 발생 시 단계별 비상 근무 체계를 가동하고, 인력과 장비를 신속 투입해 응급 복구에 나설 예정 이다. 지역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와 현장 중심 협력체계도 강화한 다.

양경진 건설국장은 “최근 이상기후 로 인해 국지성 폭우가 잦아짐에 따 라,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분 야에서 사전점검과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”며 “시민 모두 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 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 다.

/익산=이재춘 기자

익산시, 청소년 ‘100원 버스’ 7월 도입

18세까지 확대 시행… ‘행복더하기’ 앱 통해 전용 교통카드 신청

익산시가 ‘100원 버스’를 지역 청소 년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.

익산시는 기존에 어린이(6~12세)를 대상으로 추진해 온 ‘100원 버스 요 금제’를 오는 7월부터 청소년(13~18 세)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21일 밝혔 다.

‘100원 버스’는 전용 교통카드를 사 용해 시내버스를 타면 실사용 금액 중 본인 부담금 100원(건당)을 제외 한 나머지를 다음 달에 환급받는 방 식으로 운영된다.

현재 익산시 버스 요금은 교통카드 이용 시 어린이 750원, 청소년 1,250 원이다. 하지만 앞으로는 전용 교통 카드를 사용할 경우 어린이는 월 3만 원(46회), 청소년은 월 5만 원(43회) 까지 ‘100원 요금’ 혜택을 받을 수 있 으며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다.

전용 교통카드는 6월 2일부터 ‘행복 더하기’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 신청 할 수 있다. 신청 시 기재된 주소 또 는 재학 중인 학교로 카드가 배송되 며, 편의점 또는 앱을 통한 선충전 후 사용 가능하다. 단, 다른 시·군 버스 이용, 다인승 결제, 하차 시 미 태고(단말기 미접촉) 등은 지원 대상 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.

시는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사업과



연계해 전용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 했다.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어린이 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, 대중교통 이용 습관을 유도하는 계기 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양경진 건설국장은 “앞으로도 시민 체감도 높은 교통복지 정책을 지속적 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”이라며 “정책 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사전 신청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”고 말했다.

/익산=이재춘 기자

군산의료원, ‘군산시민 건강강좌’ 호응

정확한 건강정보 제공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 도모

군산의료원이 지역주민들의 건강 수 준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<군산의료 원>과 함께하는 군산시민 건강강좌’가 원과 함께 하는 군산시민 건강강좌’가 오는 10월까지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정 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다. 현재는 정형 외과, 외과, 신경과, 성형외과 등 해당 전문의가 다양한 건강관리 주제로 무 료 건강강좌를 진행 중이다.

군산의료원은 시민들이 평소 궁금해 하던 질병이나 건강관리 정보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,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강좌를 마련했다.

특히 강좌 시작하기 전인 10시 30분 부터 참석자들을 위한 할당·콜레스 테롤·심방세동·혈압 등 무료 기초 건강검진도 제공하고 있다.

오는 22일에는 오세광 치과과장의 ‘백세전라를 위한 치과상식’ 강좌가 열리며, 백세 시대에 맞춘 구강 건강 관리의 중요성과 예방법을 소개한다.

이어 △전정훈 정형외과 과장의 ‘요 통 치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(6월 26 일) △오석준 성형외과 과장의 ‘화상 등 성형외과 치료 및 소개’(7월 24일)



△김소영 내분비내과 과장의 ‘당뇨병 에 관해 궁금한 것들’(8월 28일) △이 상암 신경과 과장의 ‘꿀잠 자기 위해 알아야 할 수면장애’ △장 혁 신경과 과장의 ‘치매의 진단과 치료’ 강좌가 이어질 계획이다.

참가 신청은 누리집 또는 군산의료 원 전화(☎063-472-5003)으로 문의하 면 된다.

조준원 원장은 “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의 중요 한 역할이다.”라며 “건강강좌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건강을 잘 관리 하고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 게 돕겠다.”고 말했다.

/군산=이재춘 기자

군산시, 5월 다양한 해양관광 상품 선보여

‘바다가는 달’을 맞아 한국관광공사와 손잡고… 섬 도보여행·유람선 관람 프로그램 등 마련

군산시가 5월 ‘바다가는 달’을 맞아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다양한 해양관 광 상품을 선보이며 ‘명품 해양관광도 시’로의 도약을 시작했다.

이번 관광 상품들은 문화체육관광부 (한국관광공사)와 해양수산부가 공동 추진하는 전국 캠페인 5월 ‘바다가는 달’의 하나로 추진되며 해양관광의 확 대를 위해 운영된다.

가장 주목받는 대표 상품은 섬 도보 여행의 매력을 경험하는 ‘달도 바다 걷기 여행(해양트레킹)’, K-관광섬과 해상인도교를 둘러보는 K-관광섬 유 랑선 투어’로 현재 총 4회에 걸쳐 260 여 명의 단체관광객 모집을 완료했다.

개별 관광객들을 위한 ‘섬에왔섬, 섬 찍고 페이백까지 ON’도 눈길을 끈다.

5월 한 달간 1박 2일 세미패키지를 특 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이 프로 그램은 말도, 명도, 방축도 방문을 인 중하면 현금환급(페이백) 혜택을 제공 하는 상품이다. 관광객들은 군산의 다 양한 섬을 즐기면서 특별한 혜택도 누 릴 수 있다.

6월부터는 더욱 특별한 해양 관광상 품이 기다리고 있다. 한국해양재단의 공모에서 선정된 걷기여행(트레킹) 전 문 여행사에서 ‘달도 안되는 위도’라 는 상품이 주인공이다.

부안(위도)과 군산(말도)을 연계한 1 박 2일 상품 ‘말도 안되는 위도’는 총 20회 동안 운영된다. 시는 이 상품이 군산을 새로운 해양 여행지로 성장시 키는데 중요한 기록제가 될 것으로 기

대하고 있다.

군산시 관계자는 “5월 바다가는 달 을 맞아 군산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 에게 고군산군도의 독특한 해양경관, 체험, 먹거리를 널리 알려 ‘서해안 해 양관광’의 명품 코스로 거듭날 수 있 도록 노력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이어 “K-관광섬, 해양레저체험단지, 선유도 음악분수 등 조성 중인 주요 관광지에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고 군산군도의 정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 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고 전했다.

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 가 협업하여 진행하는 ‘5월 바다가는 달’ 관련 다양한 상품과 혜택은 공식 사이트(<https://seatripmoon.co.kr/>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/군산=이재춘 기자

지역 소식통

익산시, 청소년 자기주도 학습캠프 진행 ‘호응’

익산시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청소년 주도적 진로 탐색 지원에 나섰다.

익산시는 교육발전특구 사업 의 일환으로 상반기 총 4회에 걸쳐 ‘자기주도학습캠프’를 진 행했다고 21일 밝혔다.

자기주도학습캠프는 원광대학 교와 협력해 진행했으며 △원광 여자고등학교(1차) △이일여자 고등학교(2차) △이리고등학교 (3차) △남성고등학교(4차)의 학생 총 1,000여 명이 참여했다.

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원광대 교육발전특구사업단을 중심으 로 의예과를 비롯 20여 학과의 교수진과 재학생 멘토가 참여해 전문성과 현장감을 더했다.

실제 21일 열린 이리고, 남성 고 캠프는 경제금융학과, 소방 행정학과, 경찰행정학과, 컴퓨 터공학과 등 다양한 전공 부스 에서 실습 중심의 체험이 이뤄 져 큰 호응을 얻었다. 이어 입 학사정관의 1:1 맞춤형 상담 등 이 진행돼, 진로·진학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 공했다.

/익산=이재춘 기자

군산시,개인정보보호수준 평가서4년연속 우수등급

군산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에서 실시한 ‘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’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했다.

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 는 이 평가는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등을 진 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특히 2015년부터 실시해 온 ‘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’을 강 화해 각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참여 예방 활동 등 전반을 진단하며, 국민 개인정 보의 안전한 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.

지난해는 처음으로 ‘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’를 중앙부처·지 자체·공기업 등 1,426개 공공기 관 대상으로 실시하기도 했다.

군산시는 △전 직원 개인정보 보호 교육 △개인정보 유출 방 지 시스템 도입 등과 함께 개인 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관리체계 를 높게 평가받았다.

/군산=이재춘 기자

전북의 역사·문화 유산

전주매일 캠페인

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

구 군산세관 본관

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.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.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.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, 내부를 장식했으며,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.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.